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 집중단속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유통땐 밀수로 간주

오는 8월부터 표시사항 미표기 한약재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된다.

또 제조대상으로 지정된 한약재 69개 품목중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약재등도 집중 단속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시·도 보건복지관련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재에 대한 기존 유통관행으로 업계에서 한약재 유통제도 개선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고 8월말까지 지도·계몽위주의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9월부터 집중단속키로 했다.

제조업소는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입업자는 제조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 꼭 제조업소에 판매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표시기재(자가규격땐)와 한약재 구입자료를 분명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국산한약재도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또 수입업자가 94년 이후 수입금지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를 유통땐 밀수로 간주되며 한방의료기관이 감초,계지등 비규격 수입한약재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한 것으로 판단, 단속대상이된다.

▲임연학회장은 지난 6월11일 농진청 작물시험장 성낙술박사, 협회 정형모부회장, 황인구부회장 이천군 농촌지도소장 등과 함께 생약재배 현황 파악을 위해 경기도 이천 관내 생약재배지를 돌아봤다.(사진은 경기도 김성배 지부장이 이천지역에 파종한 다년생 황기 재배밭)

고가약재 식약청서 직접 관리

녹용·녹용중품·우황등 품질검사

녹용·녹용중품·우황등 고가 한약재의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담당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수입한약재의 검사체계가 통관후 검사에서 통관전 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의약품수출입협회서 통관후 검사해오던 녹용, 녹용중품·우황등 수입량이 많은 고가한약재에 대해 직접 검사하고 기타한약재는 수협이 계속 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요령을 시행에 나섰다.

식약청은 또 이화학적 검사 대상 한약재를 종전 40종에서 변질·변태 또는 위조가 용이한 갈근,사인등 55종을 추가, 95종으로 확대하고 검사결과 전에는 판매·양도·사용을 금지,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만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매 수입시마다 식약청장 또는 수협회장(의약품시험연구소)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검사의뢰된 수입한약재는 수협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관련규정 제·개정전까지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중 품질검사와 관련된 제16조(품질검사)·제17조(검사기관의 지정)·별표2 한약재 검사방법등은 이 요령으로 대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진쑥, 솔잎 완제품 제조허용

알로에겔,동충하초 식품원료 사용도

늦어도 7월초 부터는 인진쑥·솔잎·매실등을 원료로 사용, 환(丸)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진쑥 등을 환 형태의 식품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품 개정(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보건복지부가 강원 양양군 서광농협의 〈인진쑥편〉을 비롯해 〈솔알알이〉등 환제품이 식품위생법상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올 3월과 지난해 1월 각각 제조를 중단토록 하자,이에 강원지역의 농민은 물론 농협등 생산자단체·학계 등이 반발, 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또 환제 외에도 알로에겔과 누에동충하초도 식품원료로 사용,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농민신문 5월27일자〉

천마 새품종 '홍릉천마균' 선발

임업연구원, 증식력우수 생산성 높아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천마 신품종 '홍릉천마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임업연구원은 18일 5년간에 걸친 재배시험 끝에 천마증식력이 뛰어난 신품종 홍릉천마균을 선발, 품종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홍릉천마균은 증식력이 뛰어나 생산성이 한평(33m2)당 9.58kg으로 기존 등록균주보다 40% 정도 증수효과가 있다.

천마 인공재배는 원목에 종균을 접종한 후 어린 천마를 식재,균사를 통해 영양을 얻어 증식되도록 하는 것인데 천마공생균인 뽕나무버섯균은 종류가 다양해 우량종균 사용여부에 따라 생산성에 큰 차이가 있다.

임업연구원 김현중 박사는 "천마 인공재배는 재배기술과 함께 우량종균 선택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따라서 천마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재배검정을 거쳐 선발된 홍릉천마균을 이용,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재배방법을 자문받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문의:02-961-2611)

인삼흑염소중탕

인삼과 한약재 그리고 흑염소의 신비로운 조화

KBS,MBC,SBS 방영품

◆ 성분 및 배합비율

흑염소 50%, 작약 5%, 당귀 5%, 천궁 3%, 숙지황 3%, 황기 5%, 백복령 3%, 창출 3%, 구기자 5%, 대추 4%, 감초 2%, 계피 2%, 사인 2%, 이성화당 2%, 인삼 6% 계:100%

◆ 동의보감에 보신 보혈을 위한 식품으로 수록되어 있듯이 청정지역인 금산의 고지대에서 인삼과 각종한약재를 먹고 자란 약20근(9개월~12개월) 정도의 흑염소에 다시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과 십전대보탕 재료를 첨가,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합격증지를 교부받아 제품앞면에 부착하여 소비자께서도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단, 합격증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본사의 제품이 아니오니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원산지 : 한국

◆ 용량: 80g×50포

◆ 권장소비자가격 : ₩168,000

본사 및 주문처 충남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184번지 TEL:(0412)54-7712~4, FAX:(0412)54-7715